

진안 100원 순환택시 운행

연말까지 시범 운행 진안읍 군상·군하리 순환 읍내 상권 활성화 기대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고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안읍내 주요지역을 일정시간마다 도는 순환택시 개통식을 가졌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행하는 순환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는 진안읍 군상·군하리를 순환하며,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1회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류장은 진안고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있으며, 진안읍 5개 구역을 일정시간마다 순환한다.

운행구간은 주공1.2차 아파트단지,

사랑의교회, 한전진안지점, 진안성당, 웰빙아파트, 남광·신용·고향마을아파트, 의원원·보건소, 수영장 및 공설운동장 등이다.

특히 관공서와 병·의원, 약국 복지시설을 각 구역별로 안배하여 2~3회 택시를 바꿔 타면 진안읍 소재지권 전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항로 군수는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만족형 교통복지 정책들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촌 교통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7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순환택시 개통식을 가졌다.



무주군 '주말난장' 성황

4월부터 현재까지 1.7억 매출... 10월까지 열려

무주군이 무주읍 IC단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장터(주말난장)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무주군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직거래 설립 운영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원받은 4,000만원(부수설치, 내부시설, 홍보비 등 명목) 기반으로 10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100일 간(주말, 주중 특별운영 포함) 운영(주체 무주군 & 무주반딧불유용사업단)할 예정이다.

무주 관내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 천마와 오미자 가공품을 비롯한 머무와인과 사과, 포도, 감자, 고추, 벌꿀, 옥수수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반딧불 농·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1억 7,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에 따르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상품진열, 위생,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가격을 감안한 가격 결정과 청정관광지 직거래 장터 이미지 구축, 고객 상담실 운영과 카드단말기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무주군청 임경택 농업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무주 반딧불 직거래장터에 이벤트 행사를 병행해 볼거리를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천면 하초마을 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마을 숲 분야 국내 최초... '수구막이 숲'으로 거센 바람·외부로부터 마을 보호 역할

진안군은 지난 7일 정천면 하초마을 숲이 마을 숲 분야로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청이 하초마을 숲을 비롯해 보존 가치가 높은 전국 4곳의 숲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자산 증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34곳을 선정했다.

하초마을 숲은 '수구막이 숲'으로 녹음이 짙은 계절에 도로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거센 바람과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숲속에는 물담과 비보적 기능의 입석, 거북돌이 복합신체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정월 초사흘날에 당산제를, 정월 초이튿날에 고목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진안군 정천면 하초마을 숲

이 숲은 마을 숲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숲으로 2005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 숲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제1회 낙엽음악제가 열리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마을 숲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

를 숲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적극 발굴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남권 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점검회의' 개최

환경부가 지난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호남권 국립공원 11개 사무소 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울리, 현장에서의 개선방안도 찾기 위해 덕유산국립공원의 함적봉 탐방로 구간과 구천동계곡 비파담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진안군은 지난 7일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천면 운일안반일안에서 실시된 행사에는 군청 직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무전장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운일안반일안에 찾아온 피서

객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나눠줬다.

군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에 휴일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영희 부군수 '행복이음패키지' 장수군 1호 가입

농협 장수군지부는 지난 7일 장수 부군수실에서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과 함께 농협 상호금융이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개발한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에 한영희 부군수가 장수군 1호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이음 패키지는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상품종류는 임출식, 거치식, 정기적금, 목돈플러스적금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지역 소식통

장수 생활체육교실 가족캠프 실시

장수군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관내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충남 금산에서 생활체육교실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실시된 이번 캠프는 신청기간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이는 장수군체육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첫째날 래프팅과 산악 오토바이 체험을 한 후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로 가족애를 돈독하게 만들었고, 둘째날은 도자기 체험 및 주변 체육시설 견학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 캠프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레포츠를 가족과 함께 하며, 가족 간의 좋은 추억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 생활체육교실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체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長壽)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장수마을 만들기' 진행

무주군보건의료원이 통감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백세건강 장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영양교육 및 저염식 조리실습, 우울·자살예방교육, 금연교육, 구강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퍼즐 맞추기 등 능력이 교육(주 1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뇌혈관질환,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당뇨, 치매 등 5대 주요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춰 한방의사, 치과의사,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매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주 2회 건강체조 교실도 운영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김선영 건강증진 담당은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 백세건강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질문을 개선하고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원은 이외에도 마을별 걷기 코스를 발굴해 건강걷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 환경 조성에 민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